



혜성가의 배경적 의미와 문학적 형상화

저자 (Authors)	이승남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123 , 1999.3, 57-83(27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23 , 1999.3, 57-83(27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4457
APA Style	이승남 (1999). 혜성가의 배경적 의미와 문학적 형상화. 국어국문학, 123, 57-8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9 11:1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혜성가의 배경적 의미와 문학적 형상화

이 승 남*

I. 서론

본고는 혜성가 창작의 배경적 의미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적 형상화로서 작품의 표현과 의미구조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혜성가 연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상의 난점이 존재한다. 첫째, 혜성가의 향찰표기 중 가요의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는 관건이 되는 중요한 몇몇 부분에 있어서 어석적 난제가 놓여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혜성가의 창작과 가창의 상황을 알려주는 서사물이 극히 단편적이고 모호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혜성가는 주술적, 제의적, 불교적, 화랑찬가적, 치리가적인 것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되었고, 이러한 연구들에는 항상 향찰로 표기된 가요의 몇몇 부분에 대한 어석과 함께 창작 배경으로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의 검증 여부가 논의의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혜성가는 삼국유사 권 제5 감통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에 짧은 서사물과 함께 전한다. 이 조는 가요가 중심으로 서사물은 그 가요를 설명한 것이다.¹⁾ 가요의 향찰 표기에 대한 어석상의 난제가 가로놓

* 동국대 강사

- 1) 신라가요와 그 기술물과의 관계물 보면……, ①노래가 주이고 기술물은 그 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것, ②기술물이 주이고 노래는 부수적인 것, ③노래와 기술물이 병립돼 있는 것, ④노래만 전하고 기술물은 전하지 않는 것 등, 4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 노래가 추이고 기술물은 그 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는 <안민가>, <맹아득안가>, <도

여 있는 혜성가의 문학적 진실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서사물에 기술된 배경적 사실에 대한 규명이 그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하지만 서사물은 극히 단편적인 기술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고, 가요와 서사물 사이에도 서사적 내용상의 어긋남이 존재하는 까닭에,²⁾ 이를 제대로 재구하기에는 과도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서사물에 언급된 단편적이고 모호한 역사적 사실에만 기대어 혜성가의 성격과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가요 자체를 여전히 역사적 사실의 모호함 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혜성가는 가요 자체 내에 그 배경적 사실과 관련된 서사적 요소가 압축되어 있는 가요이다.³⁾ 그러므로 혜성가의 창작과 가창의 배경적 사실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가요를 설명하는 서사물과 가요 자체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혜성가의 배경적 의미는 서사물뿐만 아니라 가요를 포함하여,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 전체를 관류하는 총체적 서사문맥⁴⁾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혜성가의 배경적 의미와 그 문학적 형상화의 양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는 첫째, 가요의 주술적 성격을 언어적 진술 양상으로서의 문학적 수사법과 관련하여 살핌으로써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둘째 가요의 내용과 서사물의 이야기를 포괄하는 서사문맥의 분석을 통하여 혜성가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가요의 성격을 나름대로 규명한 다음, 셋째 이를 바탕으로 혜성가의 표현과 의미구조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술가>, <혜성가>, <원가>, <제망매가>, <우적가>, <보현심원가>와 그 기술물이 있다.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pp.251~252.

- 2) 서사물에는 혜성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가요에는 혜성이 없다고 했다. 또 서사물에는 일본병의 내침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일본병이 돌아갔다고만 했는데, 가요에는 일본병의 침입을 부정하고 있다.
- 3) 임기중은 향가의 주사적 내면구조를 분석하여, 주사에는 전반적으로 서사적 요소가 압축되어 들어 있다고 보았다. 임기중, 앞의 책, pp.323~324 참조.
- 4) 이는 '서사물'이라는 용어와 구별해서 사용한 것으로, 서사물의 이야기와 가요의 내용을 포함한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 이야기의 전모를 가리키는 것이다.

II. 해성가의 주술성과 수사법

사회적 산물로서 한 작품의 언어적 수사는 그러한 진술의 배경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해성가는 앞서 언급했듯이 그 자체 내에 배경적 상황을 알려주는 서사적 요소가 압축되어 있는 주술적인 가요이다. 그러므로 가요를 설명하는 서사물의 내용이 모호한 해성가의 경우 그 문학적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가요 자체의 언어적 진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성가의 언어적 수사에 대한 본고의 관심은 결국 가요에 얽힌 모호한 역사적 사실의 내용을 밝히는데 있어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다.

해성가의 주술성을 언어적 수사와 관련하여 살핌으로써 서사물의 단편성과 모호함에 기인한 해성가의 배경적 상황에 대한 의문을 보다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 다양하게 전개되어온 해성가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논의를 보다 예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윤천사 해성가조의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5 거열랑, 제6 실처랑(혹은 돌처랑이라 함), 제7 보동랑 등 세 화랑의 무리가 금강산에 유람하러 했다. 그런데 해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일이 생기자 낭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가지 않으려 했다. 그 때 윤천사가 노래를 지어 부르자 해성의 변괴가 없어지고 일본병도 돌아가 도리어 복이 되었다. 대왕이 기뻐하여 낭도들을 금강산에 보내어 유람하게 했다. 노래는 이러하다.

옛날 동해 물가
 건달바가 놀던 성을 바라보고
 “왜군도 왔다!”고
 봉화를 든 변방이 있구나!
 세 화랑의 산구경 오심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

길 쓸 별을 바라보고
 “해성이여!” 사원 사람이 있구나!
 아, 달은 저 아래로 떠나가 버렸더라
 이 보아 무슨 해성이 있을꼬⁵⁾

극히 짙막한 서사물과 함께 전하는 해성가의 문학적 수사에 대해서 는 일찍이 ‘교묘한 메타포어와 경쾌한 유우머’, ‘완곡법(Euphemism, 迂言)’ 등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 중 먼저 후자의 견해를 살펴보자.

- ① 해성가 역시 주술성을 지닌 시가다. 삼국유사 融天師 해성가 조에 의하면…… 용천사가 이 노래를 지어 불었다니 별이 즉시 없어지고 왜병도 돌아갔으므로 도리어 복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보면 흉조의 제압 조복을 목적으로 한 주사로 규정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서의 어법은 명령법이 아니다. ④오히려 비밀한 이름을 불러버리는 데서 그 주술성이 엿보인다. 「리드」(Herbert Read)의 말처럼 고대인은 사물의 공포의 대상일 때에는 직접적인 관련을 피하기 위해서 迂言의 형태를 취하려 했던 것으로 그것이 바로 금기어이다. 해성과 왜병은 어떤 면에서 공포의 대상이고 염려스러운 세력이다. 이러한 대상의 직접적인 이름을 년것이나마 불러버리고 또 당대로서는 어떤 악음적인 리듬을 지니고 있었을 주문을 중얼거림으로써 이러한 언어의 주술력에 의해 왜병도 물러가고 해성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흉조와 금기를 벗겨버리려는 역동적인 의지의 흔적은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도 왜병은 신기루로, 해성은 길 쓸어줄 별로 환원시켜버림으로써 하나의 정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⑤결과의 조짐을 미리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술성이 있다고 하겠다.⁶⁾
- ② 해성가도 역시 앞에서 언명한 바처럼 완곡법(Euphemism)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두려운 대상으로서의 왜군과 해성을 실질적으로

5) 第五居烈郎 第六實處郎(一作突處郎) 第七寶同郎等 三花之徒 欲遊樞岳 有彗星犯心大星 郎徒疑之 欲罷其行 時天師作歌歌之 星怪則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大王歡喜 遣郎遊岳 焉 歌曰 舊理東戶汀叱 / 乾達婆矣遊鳥騰城叱 昴良望良古 / 倭理叱軍置來叱 多烽燒邪隴邊 也蔽耶 / 三花矣岳音見賜鳥戶聞古 / 月體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 道尸掃尸星利望良古 / 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 後句 達阿羅淨去伊叱等邪 / 此也友物?(*叱·北·比·甚?)所音叱 彗叱只有叱故 해성은 임기중, 우리의 옛노래, 현암사, 1993, p.26 참조.

6) 이재선, 향가의 이해, 삼성미술문화재단, 1979, p.64.

문맥의 표면에 떠올리고 있기는 하면서도, 그것을 乾達婆의 늙은 성(신기루)이라 일컫고 있는 요소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⁷⁾

위에서 혜성가의 주술성은 ㉔와 같이 혜성과 왜군이라는 ‘비밀한 이름을 불러버리는 데서’ 발견되며, 혜성과 왜병이라는 공포의 대상이자 염려스러운 세력을 길 쓸어줄 별과 신기루로 부르는 어법을 迂言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혜성가의 수사법은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주술성을 지닌 가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명령법이 아니다.⁸⁾ 이 주술적 수사법은 관련 서사물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해된 것이다. 혜성가는 예고적인 주사로서 목격하는 바를 선형적으로 달성해버리는 것으로서 선형적인 주사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노래의 힘으로서 노래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버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⁹⁾ 그러므로 ㉔의 ‘비밀한 이름을 불러버리는’, 그리고 ㉕의 ‘결과의 조짐을 미리 전제함’ 주술적 어법으로서의 완곡법과 우언이라는 수사법은, 가요 자체의 언어적 진술만이 아니라 혜성 출현이란 변고의 예방을 선형적으로 달성한 혜성가의 성격과 관련했을 때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㉕의 완곡법에 대한 설명은 보다 조심스러운 이해가 필요하다. 가요에서 왜병을 신기루라고 한 것을 두고 비밀한 이름을 불러버리는 주술적 어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혜성과 왜병은 모두 공포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혜성의 출현과 왜병의 내침이 갖는 공포의 성격은 각각 다른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 즉, 혜성은 그 출현이 예고하는 현실적 재난의 정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포의 대상일 수 있지만, 왜병은 그 출현 자체가 곧 현실적 재난으로 정체가 이미 드러나 있는 까닭에, 비밀스러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인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혜성가의 수사법으로서 우언 혹은 완곡법을, 공포의 이름을 비밀스럽게 불러버린다는 주

7) 위의 책, p.96.

8) 주술적 가요는 <呼稱→命令→威嚇>의 어법으로 된 것이 근간을 이룬다. 임기중,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이우출판사, p.322 참조.

9) 위의 책, p.320.

술성을 지닌 것으로 규정할 때, 이 비밀스러운 공포는 이미 공개된 현실적 재난 그 자체인 왜병의 출현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현실적 재난의 예고인 혜성의 출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요에서 왜병을 신기루라고 한 것은 <‘왜병⇒신기루’임>이 아니라, <‘왜병⇒신기루’였던 사실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 된다. 이 부분만의 개별적 문맥으로 본다면 하나의 사실을 공개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 대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우연이나 완곡법이 아니다. 혜성이 자체의 주술성을 지닌 우연, 혹은 완곡법으로 인식하는 것은 혜성을 길쓸별로 불러버리는 것을 두고 가능한 것이지, 왜병을 신기루로 부르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병을 신기루라고 한 것이 그 자체의 어법상으로는 그 비밀스러운 주술성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가요에서 이 ‘왜병이 신기루였다’는 사실¹⁰⁾을 혜성 출현에 대한 부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면, 비밀스러운 공포의 대상인 혜성의 존재를 길쓸별로 말하기에 앞서 왜병을 신기루라고 완곡하게 말한 것이 된다.¹⁰⁾ 즉 왜병을 신기루라고 말한 것이 주술적인 완곡법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적이고 개별적 문맥이 아닌 다른 문맥과의 관계를 통해서이다.

또 공포의 대상인 혜성을 길쓸별이라고 한 완곡법도 그 문맥 자체로서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불러버리는 주술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가요의 전체적 어법으로 볼 때 비밀스럽게 불려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혜성이라는 단어는 그 존재의 비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단호한 어조 속에서 등장하여 그 존재가 부정된다. 이어지는 ‘이보아 무슨 혜성이 있을까’라는 문맥이 그것이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이름을 비밀스럽게 불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드러내어 불러버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술성의 의미는 비밀한 이름을 단호하게 드러내어 불러버린 그 비밀한 의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혜성가의 주술적 의미는 혜성 출현으로 인한 변괴를 미리 예방했다는, 가요와 서사물을 관류하는 총체적 서사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10) 이에 관해서는 IV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것으로 파악된다.

- ① 사뇌가를 신성시·주술시하는 전통적 유품을 단적으로 보이는 好例인 동시에, 그 談諧인 歌風과 巧緻한 적유법 등 사뇌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적 기교를 보이는 명작이다.¹¹⁾
- ② 羅歌 十四首 전부가 個個의 특질로 보아 어느 것이나 뜻깊은 秀作 아님이 아니나, 순연한 문학적 眼目으로 보아, 모르긴 몰라도, 그 約半數는 참으로 뛰어난 驚異로운 작품들이다. 이를테면 年代 順으로—저 融天師 「彗星歌」의 교묘한 메타포어와 경쾌한 유우머……¹²⁾

①에서 해성가를 ‘사뇌가를 신성시·주술시하는 전통적 유품을 단적으로 보이는 好例’라고 하여 주가적 성격으로 파악한 것은, 서사물에 언급된 해성가가 지난 신비로운 효험, 즉 ‘노래를 지어 부르니 星怪가 없어져 일본병이 환국하고 도리어 복이 되었다’¹³⁾는 서사물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①의 ‘談諧인 歌風’은 가요 전체를 통하여 풍기는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또 ①의 ‘巧緻한 적유법’과 ②의 ‘교묘한 메타포어’의 ‘교치함’과 ‘교묘함’이라는 언급도 가요의 문면에서 해성을 길쭉별로 혹은 일본병을 신기루로 부른 것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②의 ‘경쾌한 유우머’도 가요 문면의 특정 부분을 지적하여 설명한 것은 아닌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해성가는 그 어법과 수사에 있어서 교묘함, 교치함, 경쾌함, 해학적임을, 가요의 부분적인 문맥 내부에서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문맥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해성가의 주술적 수사법은 가요 자체의 언어적 진술만이 아니라 해성 출현의 변괴를 가요를 통해 해결했다는, 가요와 서사물을 관류하는 총체적 서사문맥 속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가요의 개별적이고

11) 양주동, 增訂 고가연구, 일조각, p.561.

12) 위의 책, p.883.

13) 天師作歌歌之 星怪則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

부분적인 문맥 단위가 아닌, 이들 사이의 관계를 통한 가요 전체의 의 미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¹⁴⁾

Ⅲ. 서사문맥의 분석

앞서 언급했듯이 <음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의 서사물은 가요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가요가 서사물의 중요한 화소로서, 가요가 없이는 서사물의 전승이 거의 불가능하다.¹⁵⁾ 이 조의 가요와 서사물은 세 가지의 의미소를 공유한다. 혜성과 일본병과 화랑은 가요의 문면에 등장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각각 내용이 분단되며,¹⁶⁾ 서사물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 요소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앞서 살폈던 가요의 교묘하고 巧緻하고 경쾌하고 해학적인 주술적 수사법은, 이 세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단된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문맥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요의 주술적 수사법이 혜성, 일본병, 화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문맥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가요의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고 본다면, 가요를 설명한 서사물의 모호한 행간도 혜성, 일본병, 화랑이라는 세 요소들 사이의 관계 하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사물상의 이 세 요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가요가 지닌 메타 포어의 '교묘함 혹은 巧緻함', 유우머의 '경쾌함' 혹은 '談謔的임'이라는 어법과 수사의 분위기와 원리를 함께 생각한다면, 단편적이고 모호한 서사물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짚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혜성가의 어

14) 혜성가의 언어적 수사에 대하여 '집중적 설득의 표현과 구조'(양희철,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1997.)와 '은유와 대구를 통한 의미화 과정'(고혜경, 혜성가의 시가적 성격, 이화어문논집 11집, 이화여대, 1990.) 등 서사적 의미 전개를 바탕으로 이해한 논의가 있다.

15) 임기중, 앞의 책, pp.251~252.

16) 가요의 내용 분단은 IV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법과 수사에 관한 이와 같은 이해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 조의 총체적 서사문맥을 분석하기로 한다.

<유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는 가요의 배경적 정황의 설명에 있어서 서사물과 가요의 사이에 내용상의 괴리가 있다. 서사물에는 혜성의 출현과 소멸, 일본병의 회귀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 비해, 가요에는 혜성의 존재와 일본병의 내침이 부정되어 있다.¹⁷⁾ 또 서사물에서는 세 화랑이 혜성의 출현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산행을 중지하려 했다고 했는데, 가요에서는 세 화랑의 산행을 기정사실화하여 화랑에 대한 찬미의 진술을 하고 있다.¹⁸⁾ 서사물과 가요는 혜성, 일본병, 화랑이라는 세 가지 중심 의미소와 관련해서 서로간에 거의 반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조의 내용의 중심은 혜성가가 지닌 가요의 효험, 즉 왕권과 왕실을 수호하기 위해 동원된 노래의 효험에 있다.¹⁹⁾ 그러므로 서사물과 가요 사이에 놓인 이러한 정황적 괴리는 가요가 지닌 효험과 그 효험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틀 속에서 그 양상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즉, 혜성, 일본병, 화랑이라는 세 중심 의미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혜성가의 서사문맥을 가요의 효험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 혜성과 일본병

<유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의 혜성가 창작·가창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크게 보아 혜성 출현과 일본병 내침에 대한 검증의 문제로 집약된다.

혜성의 출현은 이 조의 서사문맥상 서사물과 가요를 맺어주고 있는 연결고리로서, 서사물이나 가요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이다. 서사물과

17) 이와 같은 해석은 앞의 논지를 따라 양주동의 어석을 따른 것이다.

18) 서사물에서 화랑이 산행을 하게 된 것은 혜성가의 창작과 가창이 끝난 후의 일로서, 혜성가의 창작·가창 시점은 화랑이 산행을 중지하려 한 때이다.

19) 임기중, 앞의 책, p.254.

가요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면 혜성의 출현과 소멸은 이 조 전체 서사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화소가 된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혜성의 출현이 일본병의 침입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곧 혜성의 소멸이 일본병의 환국을 의미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혜성가의 해석에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일본병의 내침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시기나 정황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일본병 내침은 서사물에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가요에서도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²⁰⁾, 단지 서사물의 혜성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덧붙여 일본병 환국에 대한 내용이 나올 뿐이다.

서사물에서 일본병이 돌아갔다는 한 점에서 일본병의 내침이 이미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²¹⁾ 기존 연구에서도 일본병의 내침에 대해서 유사나 사기 일본서기 등의 기록을 통해 역사적으로 검증하고 있기는 하다.²²⁾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일본병 내침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혜성가의 창작의 원인이 되는 직접적인 단서라고 할 수는 없다.²³⁾ 즉, 일본병의 내침은 그 당대와 시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혜성가의 창작과는 관련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다만 당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식되었던 과거의 사실이라는 것으로 그 의미의 영역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일본병의 물러남이라는 서사는 그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가요의 효험을 설명하는 하나의 증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 舊理東戶汀叱/乾達婆矣遊鳥隱城叱盼良望良古/倭理叱軍置來叱多/烽燒形隱邊也蔽耶 이 부분의 어석은 양주동의 '예전 동해물가/건달바의 논 성(신기루)을랑 바라보고/예군도 왔다/봉화를 든 변방이 있어라'를 따른다.

21) 윤영옥은 혜성의 출현을 일본병 내침의 징조로 보는 한편, 이 일본병을 이미 한 차례 침입해 왔다가 격퇴를 당하여 돌아가지 못했던 패잔병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윤영옥, 혜성가의 고찰, 영남어문학 4, 1977, p.21 참조.

22) 김승찬, 향가문학론, 새문사, 1986, pp.199~200.

23) 혜성의 출현을 일본병의 내침 징조로 볼 때, 혜성(일본병)의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도 일본병이 침입했다면 혜성가의 효험은 없었던 셈이 된다. 최시한, 향가 해석의 한 국면, 김열규편, 삼국유사와 한국문학, 학연사, 1985, pp.130~131 참조.

그런데 가요에는 왜병의 존재를 ‘신기루’로 돌려버림으로써 이를 간단하게 부정한다. 그리고 세 화랑에 대한 찬미를 거쳐, 해성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가요의 일본병에 대한 진술은 결국 해성에 대한 부정을 하기 위해 늘어놓는 예비적 진술로 보인다. 해성의 출현이 그 어떠한 변고를 예고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가요는 일차적으로 일본병의 내침이 사실이 아닌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당대인의 뇌리에 이미 각인된 빈번했던 일본병의 내침 사실을 가요에서 이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병의 내침에 대한 부정은 해성의 출현에 대한 부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 언술의 구실을 하고 있다. 당대인에게 현실적으로 빈번했고 기정사실화된 역사적 사건을 이용하여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현재의 그와 비슷한 성격의 또 하나의 사실을 부정하는데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얻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기루를 왜병으로 착각한 사실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이 말은, 일본병의 내침을 부정함으로써 해성의 출현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희석시키는 효험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변고를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전환시켜 해석함으로써 변고를 해결한 방식이다.²⁴⁾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천재의 변고	변고의 내용	변고의 해결을 위한 작위	변고의 해결
해성출현	언급되지 않음	보조적 작위 : 일본병 내침 부정 주 작위 : 해성 출현 부정	해성소멸 : 언급되지 않은 변고의 해결

이러한 방식은 천재의 변고가 인간 일에 대한 불길한 예고이기는 하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우회시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서사물의 ‘일본병도 돌아가 도리어 복이 되었다’는

24) 이와 유사한 방식이 삼국사기에도 산견되는데 권41 열전 김유신조의 毗曇과 廉宗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비담과 왕의 군사가 대치하여 열흘 동안 싸움이 계속되던 때, 월성에 큰 별이 떨어진 것을 보고 비담의 무리가 선덕여왕이 敗續할 징조라고 하여 기상이 충천한 것을, 김유신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거기에 불을 안기어 종이연에 달아서 띄워버리고는,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소문을 내어 적군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고, 군사를 독려하여 비담의 무리를 물리쳤다.

진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화위복과 같은 의미인데,²⁵⁾ 서사물 상에서는 이 ‘복’에 해당하는 일이 단순히 일본병의 물러남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병 내침에 대한 부정이 혜성 출현을 부정하기 위한 보조적 작위로 볼 때, 서사물에서 ‘도리어 복이 되었다’는 ‘복’은 일본병이 돌아간 것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보다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즉 일본병이 돌아간 것은 그 ‘복’의 부분적 의미만을 지닐 뿐, 오히려 혜성 출현이 예고했던 그 어떠한 불행한 일이 해결되어 이루어진 ‘복’의 주된 의미 속에 부수적으로 동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요의 ‘왜군도 왔다’라는 문맥의 ‘도’라는 조사로 미루어 볼 때도 어떤 일과 더불어 왜군이 왔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고, 이 어떤 일이란 혜성의 출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²⁶⁾ 따라서 그 복의 의미는 혜성의 즉멸로 인해 일본병이 돌아간 것과 같은 시기에 해결된 그 어떤 사건에서 찾아진다. 즉, 왕이 기뻐하며, 혜성의 출현을 의아해 하던 세화랑 무리의 산행을 허락한 이유는, 일본병이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적 사건(이것이 곧 혜성 출현이 예고한 그 변고가 된다)이 해결된 그 ‘복’의 주된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²⁷⁾ 그러나 그 현실적 사건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다.

이 ‘복’의 주된 의미는 곧 가요에서 일본병의 내침을 부정함으로써 노렸던 혜성 출현의 부정 의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이었던가라는 점과 관련된다.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의 주된 사건은 일본병의 내침이 아니라 혜성의 출현이다. 주된 사건의 해결, 즉 혜성의 소멸에 때맞추어 일본병도 돌아갔다. 결국 서사물의 일본병의 돌아감은 가요의 창작과 가창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가 아닌 우연적 결과이면서도, 가요로

25) 임기중, 앞의 책, p.281.

26) 이도흠, 혜성가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4, p.38.

27) 서사물의 다음과 같이 끊어 읽어서 그 생략된 부분의 의미를 채구할 수도 있다. ‘星怪則滅 日本兵還國 / 反成福慶 大王歡喜 遣郎遊岳焉.’ ‘성괴가 즉멸하고 일본병도 환국했다. (이로써 어떤 모종의 일이) 도리어 복이 되었고 이 때문에 대왕이 기뻐하면서 낭도들을 풍악으로 보내었다.’

인한 혜성 소멸의 효험을 보다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일본병의 내침과 회귀는, 당시 같은 시공에 처했던 왕이나 세 화랑, 용천사 등에 의한 직접적인 의도나 행위가 현실적으로 게재되지 않았던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는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도나 행위(혜성 출현의 부정)의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의도나 행위의 성공을 미리 확신시켜주는 우연적이고 보조적 사건일 뿐이며, 혜성의 소멸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일본병의 돌아감은 혜성가의 효험(일본병의 내침이 아닌 또 다른 변고를 해결하는)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병이 내침과 회귀를 혜성의 출현과 소멸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 조의 전체 문맥에 담겨진 의미를 추적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가요에서의 일본병 내침에 대한 부정은, 혜성 출현을 부정함으로써 그것이 예고한 변고를 용이하게 예방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에 불과하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빈번하게 있었던 일본병의 침입도 사실이 아니었던 적이 있다고 하면서, 혜성이 출현이 실질적으로 예고한 또 다른 변고를 비껴가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혜성이 출현하자 세 화랑의 무리가 의아하게 생각하여 산행을 중지하였고, 이 때 용천사가 혜성가를 불러 혜성의 변괴를 없앤다. 혜성의 변괴를 없애는 가요의 내용은, 실은 혜성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병의 돌아감은 가요에서 혜성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술상의 신빙성(가요의 효험)을 획득하게 하는 보조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혜성이 사라지고 왕이 기뻐하며 화랑들의 산행을 허락하고 일본병도 돌아가 도리어 복이 된 것은 바로 혜성가로 인한 지닌 일련의 효험이다. 혜성이 없다고 한 것은 애초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변고가 없었다는 것이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일본병조차 돌아가버렸다. 그리하여 왕은 불안을 씻고 기뻐하며 화랑이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었던 것이다.

2. 화랑과 일본병, 화랑과 혜성

혜성가의 성격을 화랑에 대한 찬가적 요소에 주목한 견해로는, 치리 가이거나 화랑찬모가의 요소도 내재해 있는 것,²⁸⁾ 화랑의 이상주의를 반영하는 것²⁹⁾ 등이 있다. 혜성가에는 화랑에 대한 찬미가 나타나 있고, 이것은 가요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티프 중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 5,6행의 '세 화랑의 산구경 오심을 듣고/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라는 문맥은 세 화랑의 산행 사실을 빌어 전체 화랑 집단을 찬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화랑 찬미를 가요의 전체적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살핀 혜성가의 '교묘한 메타포어와 경쾌한 유우머', '완곡법(Euphemism, 迂言)' 등은 찬미가의 어법과 수사로는 어울리지 않으며, 더욱이 혜성가는 주술적 가요이다.³⁰⁾

그리고 혜성가가 화랑과 관련된 가요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이지만, 화랑에 대한 찬미를 서사물의 일본병의 물러남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점은 재고를 요한다. 화랑 찬미를 일본병의 물러남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 ① 혜성이 출현하여 나라의 번고를 예고함
 - ② 일본병이 내침함
 - ③ 화랑이 일본병을 물리침
 - ④ 혜성가의 화랑찬미
- (③과 ④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³¹⁾

이와 같은 논리 전개는, 혜성가의 화랑에 대한 찬미를 일본병의 내침

28) 박노준, 신라가요의 연구, 열화당, 1982.

29) 조동일, 혜성가의 창작연대, 한국시가문학연구, 신구문화사, 1983.

30) 화랑에 대한 찬미가로 대표되는 찬기파랑가나 모죽지랑가의 경우에도 그 내용은 그리 웅과 찬양이며, 그 문학적 수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31) 김학성도 화랑찬미를 통해 화랑에게 용기를 북돋운 가요(혜성가 창작→화랑의 사기 진작→일본병 격파)로 인식하고 있다. 김학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pp.153~154.

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기대고 상정한 것이다. 혜성가가 화랑 찬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개 혜성의 출현이 일본병 내침의 예고이고, 일본병을 물리쳤기 때문에 화랑을 찬미했다거나, 혹은 화랑을 찬미하여 일본병을 물리쳤다는 식의 서사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³²⁾

화랑의 무리는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자 산행을 ‘그만 둔’ 것이 아니라 산행을 ‘그만두려(欲罷其行)’ 했으며, 그리고 왕은 혜성이 ‘卽滅’하자 화랑을 보냈다. 이는 일본병의 내침이 산행 중지의 이유라고 한다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정황 전개이다. 屋怪卽滅하자 일본병이 돌아갔다고 한 서사물의 내용에서 유추하여 일본병 내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본병이 내침하고 물리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일이 필요했을 것이고, 일본병의 내침이 있었다면 적어도 혜성가의 창작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서 일어난 일로 보아야만 하며, 그 때 바로 산행은 중지되었어야 한다. 혜성가의 창작이 일본병의 내침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앞으로 일어날 변고를 선형적으로 예방한 주술성을 지닌 혜성가의 성격³³⁾에 부합하지 않는다.

화랑들은 혜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람을 중지하려 했으며, 혜성이 소멸하자 왕은 그들을 유람 보낸 것뿐이다. 화랑들의 산행은 혜성의 소멸로 인한 결과이고, 일본병의 돌아감도 혜성의 소멸과 때맞추어 일어난 일이다. 더욱이 가요에서는 일본병의 침입을 부정하고 있다. 앞의 논의에서도 살폈듯이 단지 가요는 혜성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위해 일본병의 침입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을 이용했을 뿐, 일본병의 내침은 혜성가 창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서사물의 일본병의 물리남이 가요의 화랑에 대한 찬미와 직접적이고 인과적인 관련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또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 서사의 기본 줄기는 화

32) 이 때의 물리침은 직접적인 對戰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 화랑의 힘이나 세력이 간접적으로 일본병을 물리치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

33) 이 노래에는 기대하는 바를 이미 성취한 것처럼 외쳐대면 결과도 또한 그대로 된다는 주술심리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衆口鑠金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임기중, 앞의 책, p.255.

랑의 산행 계획, 혜성의 출현, 화랑의 산행 중지, 용천사의 혜성이 창자, 왕의 기쁨과 화랑의 산행 실현 등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혜성의 출현과 소멸은 이 서사적 문맥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 화랑의 산행과 관련되어 있다. 서사물의 첫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혜성의 출현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과 그 해결인 혜성의 소멸로서 이는 화랑의 산행 중지와 산행의 실현으로 대응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조는 가요가 중심이며 서사는 가요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용천사가 혜성의 출현을 부정하는 혜성가를 불러 혜성의 소멸을 가져온 가요의 효험에 관한 것이다. '星怪卽滅'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日本兵還國' 등을 부연한 것은 서사물의 내용이 노래의 효험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³⁴⁾ 가요의 문면을 보아도 그 내용의 중심은 혜성의 소멸에 있다.

가요에서는 혜성 출현 자체를 부정한다.³⁵⁾ 이러한 혜성의 출현에 대한 부정은 그 앞부분 제 4행과 5행의 화랑에 대한 찬미에 이어진 내용이다. 가요가 혜성의 출현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혜성을 소멸시킨 효험을 지녔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 화랑에 대한 찬미 또한 혜성의 출현에 대한 부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요의 문학적 진실은 화랑의 찬미 자체가 아닌 화랑을 찬미한 진술상의 의도에서 찾아야 할 성격의 것이다.

혜성의 출현을 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화랑의 찬미 그 자체 외에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화랑을 찬미해야 할 만한 무슨 까닭이 있었을 것이다. 굳이 화랑의 산행을 달이 부지런히 등불을 켜면서 비취준다는 당연한 의미³⁶⁾를 내세우는 까닭은, 이것이 단순한 찬미가 아니라면 그러한 의미를 강조할 또 다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혜성의 출현이 예고한 현실적인 변고는 일본병의 내침도 아니고, 화랑의 찬미 또한 일본병의 내침·몰려남과 인과적 관련

34) '星怪卽滅'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日本兵還國' 등을 부연한 것은 기술물의 내용이 노래의 효험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근거이다. 위의 책, p.254.

35) 6~9행에서 혜성의 출현을 부정하고 있다.

36) 달은 왕을 상징하고 화랑의 호국 의식은 왕권 수호와 관련된다. 유효석, 풍월계 향가의 장르성격 연구, 성대 박사논문, 1993, p.126 참조.

이 없다. 혜성가 내용의 일부분으로 나오는 화랑 찬미는 결국 혜성 출현의 부정을 통하여 혜성의 소멸이라는 효험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 효험은 왕권과 왕실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⁷⁾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자 화랑은 왕과 혹은 왕실에 중대한 변고가 있음을 감지하고 산행을 중지하려 했다. 이 때 응천사가 혜성가를 지어 불러 세 화랑을 찬미한 것은 그들 세력의 힘과 의지를 발어 혜성 출현이 예고한 변고를 미리 예방하여 왕권과 왕실을 수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혜성가의 효험으로 인해 성씨가 즉멸하고 왕권과 왕실의 변고가 예방되자 왕은 기뻐하며 화랑들의 산행을 허락했던 것이다.

3. 가요의 성격

혜성가의 창작 배경을 진평왕대 왕권도전의 모반과 같은 정치적 사건으로 보는 견해는, 그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혜성 출현을 일본병 내침으로 인식하는 견해의 그늘에 묻혀 있는 듯하다.³⁸⁾ 그것은 서사적 문맥에 나타난 정황의 모호성으로 인해 그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 듯하고, 유사나 사기의 진평왕대 기록에도 그러한 추단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관련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혜성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혜성의 출현이 왕의 사망이나 모반과 같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으로 기록된 것이 산견된다.

- ① 탈해왕 23년 2월에 혜성이 동쪽에 나타나고 또 북방에 나타났다가 20일만에 없어졌다. 24년 4월에 京都에 큰 바람이 일어났으며, 서울의 동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8월에 왕이 돌아왔다.³⁹⁾

37) 임기중, 앞의 책, p.254 참조.

38) 혜성가를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지만, 작품의 창작연대와 당시의 정치적 배경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혜성의 출현을 왕의 실정으로 인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 양희철, 앞의 책, p.429 참조.

39) 삼국사기, 권 제1 탈해이사금조.

- ② 흥덕왕 11년 12월초, 흥덕왕 11년 정월에 일식이 있었다. 6월에 혜성이 동쪽으로 흘렀으며, 7월에 太白星이 달을 범하였다. 12월에 왕이 돌아갔다.⁴⁰⁾
- ③ 효소왕 10년 2월에 혜성이 달에 들어갔다. 5월에 靈巖郡 太守 一 吉滄 諸逸이 公利를 거역하고 私利를 도모하므로 일백장으로 벌 주고 섬으로 귀양보냈다. 이듬해 7월 왕이 돌아갔다.⁴¹⁾
- ④ 혜공왕 6년 5월 11일에 혜성이 東車의 북쪽에 나타나 6월 12일에 야 없어졌다. 29일에 호랑이가 執事省으로 들어오므로 잡아죽였다. 8월에 大阿滄 金融이 모반하므로 伏誅하였다.⁴²⁾

천재지변에 관한 기사는 하늘의 경고가 정치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고대의 자연관 내지 천명사상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를 통해 천재지변에 상응하는 정치적 경고와 의미와, 또 자연의 도전(천재지변)에 대한 인간(왕)의 대응(정치변화 대책)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⁴³⁾ 천체의 변괴인 혜성의 출현은 ①, ②에서는 왕의 사망과 관련되고 ③, ④에서는 왕에 대한 모반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혜성의 출현은 왕의 사망이나 왕에 대한 모반처럼 왕의 신변에 직접적인 변고를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혜성출현, 화랑의 의심, 화랑의 산행중단, 혜성가의 창작, 혜성의 물러남, 왕의 기쁨 등으로 이어지는 서사문맥의 일련의 정황 전개에서 정치적 사건과의 연관성을 짐작해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극히 짧은 서사물의 모호한 행간의 비밀스럽고 수상한 분위기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고, 더욱이 서사문맥의 중심에 위치하는 가요의 교묘한 메타포어와 경쾌한 유우며, 그리고 완곡법이라는 언어적 수사에도 정치적 정황에서의 연술이 지니는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을 외면하기 어렵다. 왕권에의 도전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 상황은 보다 비밀스러운 성격을 지녔을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공개적인 노출은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⁴⁴⁾

40) 위의 책, 권 제10 흥덕왕조.

41) 위의 책, 권 제8 효소왕조.

42) 위의 책, 권 제9 혜공왕조.

43) 신형식, 신라사, 이대출판부, 1988, p.52 참조.

또한 혜성가의 변곡을 없애는 口唱儀禮는 신속한 효과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성을 띤 것이며,⁴⁵⁾ 여기에 창작자와 구창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왕실과 왕권의 위급한 전조를 면하려는 발상에서 실로 위급하면서도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⁴⁶⁾ 혜성가의 창작과 가창은, 화급할 뿐 아니라 직접 왕실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사로서 신속한 주력의 발동이 요청되었던,⁴⁷⁾ 그리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치적 변고인 왕권도전의 변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⁴⁸⁾

혜성의 출현을 부정함으로써 혜성이 예고하는 변고를 해결한 혜성가의 교묘한 메타포어는 이러한 비밀스러움의 은근한 노출이고, 그 경쾌한 유우머는 방어적으로만 가능했던 수사였을 것이다. 또한 완곡법은 불쾌하거나 난처한 것을 실제보다 더 듣기 좋게 또는 적합하게 하는 말로 표현하는 언어적 살균 소독제⁴⁹⁾로서, 그러한 왕권도전의 비밀스러

44) 혜성가와 관련 서사물에 감춰진 서사적 문맥의 모호함은, 유사의 저자인 일연의 진평왕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서술 태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연의 의도는 조명에서 나타나듯이 용천사와 혜성가가 이룩한 감동에 대한 서술에 집중되어 있다. 용천사와 그리고 그가 지은 혜성가가 가져온 효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치적 상황은 생략되어 있다. 일연은 용천사의 혜성가를 수록하면서 국가적으로나 혹은 민족적으로 명예롭지 못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民族史家로서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민족사의 자랑스럽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 했을 것이다. 도솔가나 안민가의 경우도 가요에 얽힌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다.

45) 임기중, 앞의 책, p.288 참조.

46) 위의 책, p.290 참조.

47) 위의 책, p.280.

48) 혜성가 창작의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정황으로 다음과 같은 골품제하의 왕성과 씨족집단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五十二年)夏五月 伊滄柴宿與阿滄石品謀反 王覺之 捕捉柴宿 斬之東市并夷九族 阿滄石品亡至百濟國境 思見妻子 晝伏夜行 還至叢山 見一樵夫 脫衣換樵夫敝衣 衣之負薪 潛至於家 被捉伏刑(삼국사기 권4 진평왕 53년)

위는 진평왕 말년(631)에 일어난 伊滄 柴宿과 阿滄 石品の 모반에 대한 기록인데, 반란 직접 모반단체에서 왕이 사전에 알고 이를 제지한 사건이다. 이 모반사건의 주동인물인 柴宿은 官 등이 伊滄인 것으로 보아 진골귀족이었던 것은 확실하고, 모반이 발각된 후 夷九族까지 처형하는 族刑이 부과된 것은 씨족공동체의 단결성을 고려한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眞骨氏族의 集團主義 理念과 王者支配 意識의 갈등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이기동, 신라골품제 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93, p.83 참조.

49) Geoffrey Leech, 언어의 기능과 사회, 이정분외편, 언어과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지

은 정황에서 강한 감화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병의 내침을 부정하고 화랑을 찬미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가요의 효험도 국내적으로 왕권도전의 정치적 병혁을 예방하여 왕권을 수호함으로써 나라를 평안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의 가요와 서사물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혜성의 출현으로 시작해서 혜성의 소멸로 끝난, 가요의 효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구조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일본병 내침의 부정이 혜성 출현의 부정을 위한 것이었듯이, 그 다음에 나오는 화랑에 대한 찬미 또한 혜성의 부정과 관계가 깊다. 혜성이 출현하여 심대성을 범한 것은 모종의 무리에 의한 왕권도전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들 무리에게는 병혁의 절대적 계기로서, 그러한 도전을 정당화시켜주고 그것의 성공을 예감케하는 하늘의 뜻으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혜성가는 겉으로는 세 화랑의 산행을 찬미하는 진술을 통하여, 화랑의 본래적 의미로서 왕권 수호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화랑 세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천명하는 한편, 또 모반의 무리들에서 감지된 왕권에 대한 비밀스러운 도전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경계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극복하는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의 가요는 진평왕대의 정치적 갈등에서 빚어진 왕권도전예의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 창작 가장된 것이고, 그 서사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나 매우 위급했던 왕권도전 사건의 해결을 비밀스럽게 단편적인 문맥으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혜성가의 표현과 의미구조

혜성가는 향가의 신이한 힘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을 이용하여 혜성

성사, p21.

의 출현이라는 천체의 변고가 예고한 왕권 도전의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당대의 정치적 변고를 예방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 가요이다.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해성가를 4부분으로 나누어 그 문학적 형상화로서 진술상의 표현과 의미구조를 살피기로 한다.⁵⁰⁾

1. 1~3행

舊理東戶汀叱
 乾達婆矣遊鳥隱城叱盼良望良古
 倭理叱軍置來叱多烽燒邪隱邊也蔽耶

舊理를 소창진평은 '네로', 양주동은 '네로' 김완진은 '너리' 등으로 읽었다. 어떻게 읽든 옛날이라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 乾達婆는 신기루로 보는 견해와 금강산의 절승의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뒤이은 부분이 왜군의 내침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신기루로 보아야 한다. 금강산의 절승으로 해석한다면, 望良古는 바라보고 해석되어, 일본병의 침입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 望良古는 6행의 望良古와 표기가 동일한 한 그 의미도 또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옛'은 1~3행 전체를 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즉, '옛날, 신기루를 바라보고 왜군이 왔다고 봉화를 사른 동해물가 변방이 있었다'라는 의미다.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 있는 '옛날'을 '예부터'로 해석한 견해⁵¹⁾는 매우 시사적이다. 이는 '예부터 자주 나타나던 건달바(신기루)를 보고'라는 의미에서, '지금 왜군이 왔다고 봉화를 올린 것도 옛날의 신기루를 왜군으로 착각했던 사실과 같다'는 의미로까지 해석의 확장이 가능

50) 기존의 견해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윤영옥은 원문 그대로 전체 9행으로 보고 1~3행, 4~7행, 8~9행(윤영옥, 앞의 논문, p.23.)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김승찬, 양희철, 고혜경 등은 전체 10행으로 보고 1~4행, 5~8행, 9~10행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김승찬 앞의 책, p.206, 양희철, 앞의 책, pp.413~429, 고혜경, 앞의 논문, pp.249~259.)

51) 홍기삼, 향가설화연구, 민음사, 1997, p.433~434 참조.

하다.⁵²⁾ 앞서 살폈듯이 신기루를 왜군으로 표현한 것은 완곡법이라고 할 수 없다. '왜군→건달바의 높은 성(신기루)'은 후반부에 나오는 '혜성→길쭉별'로 말한 부분적인 완곡법을 위한 전제로서 일종의 객관적인 정보에 불과한 것이다. 즉 혜성을 길쭉별로 인식시키기 위해, 왜군을 건달바의 높은 성(신기루)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음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에서 혜성의 출현이 의미하는 변고는 앞의 서사문맥의 분석에서와 같이 왜군의 침입이 아닌 왕권도전의 정치적 병혁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혜성가의 메타포어는 왜군 내침의 부정이라는 부분의미와 혜성 존재의 부정이라는 또 하나의 부분의미 사이의 관계에서 벗어지는 것이다. 메타포어를 형성하는 원관념은 혜성 존재의 부정이 되는 것이고, 보조관념은 왜군의 내침 부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혜성가의 직유 혹은 메타포어는 '巧妙함과 巧緻함'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여기에서 왜병의 내침에 대한 부정은 혜성의 출현으로 예고된 변란의 기미를 숨김으로써 없었던 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둘러대기라고 할 수 있다.

2. 4~5행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위는 세 화랑의 산행을 위해 달이 빛을 비춰준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혜성가에 화랑 찬가적 성격을 부여하게 하는 부분이다. 혜성가가 혜성의 출현을 부정함으로써 혜성의 소멸을 가져온 효험을 지닌 것으로 볼 때, 이러한 화랑에 대한 찬미는 곧 혜성의 출현을 부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52)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박혁거세로부터 진평왕대 사이에는 28회의 왜침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김승찬, 앞의 책, p.193 참조. 비록 약 500여 년이라는 긴 기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왜침의 사실은 혜성가 창작 당시에도 신라인에게 역사적으로 빈번한 사실로 인식되어 이러한 착각이 있었을 수 있다.

화랑(풍월도)의 호국의식은 곧 왕권수호를 의미한다.⁵³⁾ 또한 화랑 산행의 목적은 나라의 안녕을 비는 것이었다.⁵⁴⁾ 결국 화랑을 찬미함으로써 해성의 출현을 부정하는 것은, 곧 화랑의 본연의 자세를 강조함으로써, 왕권도전의 변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 '세 화랑의 산구경 오심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불을 켜는데'라는 진술은 화랑의 본연의 자세 강조하는 것으로, 세 화랑의 산행 사실을 빌어 화랑의 본연의 의미를 일깨우고 그 세력을 왕의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 이로써 모종의 무리에게서 감지되었을 병혁의 움직임은 사전에 방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왕쪽을 향해서는 반대파에 속한 무리에 의한 병혁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는 동시에, 반대쪽을 향해서는 화랑의 화랑의 왕권수호의 힘과 의지를 강조하면서 병혁의 기도를 중지할 것을 비밀스럽게 경계한 것이다. 달이 부지런히 불을 켜는 진술은, 화랑은 본래 왕권수호의 호국의식을 지닌 풍월도의 집단이며,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러한 자세를 지키고 있음을 천지신명도 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여기서는 변란의 기미를 알고서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떤면서⁵⁵⁾ 둘러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6~7행

道尸掃尸星利望良古
 擘星也白反也人是冇叱多

위는 길쭉별을 바라보고 해성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해성가의 문학적 진실에 대한 접근은 여기에서 해성의 출현을 부정한 진술상의 의도를 짚어내는 것에 달려 있을 것이다. 신기루를 왜군으로 착각한 것이

53) 유효석, 앞의 논문, p. 126.

54) 화랑도는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며 노래와 춤을 추어 나라의 평안과 발전을 비는 종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였다. 이기백, 한국사신론(개정판), 일조각, 1986. p.72.

55) 홍기삼, 앞의 책, p.440 참조. 이는 마지막 행을 두고 한 해석이지만, 가요의 전편에 둘러대기와 시치미 떤기의 어법이 사용되고 있다.

라는 진술, 화랑이란 왕권수호의 충성스러운 집단임을 강조하는 진술 등은 곧 혜성을 길쓸별로 둘러대는 진술로 이어진다. 이 흥조를 길조로 둘러대는 진술은 이미 그 이전에 이를 위한 두 번의 예비적 둘러대기 진술로 인해 그 진술의 힘이 강화된 것으로, 왕권에 대한 병혁의 기미를 해결하기 위한 설득적 언술이다. 이러한 진술로 인해 앞의 두 부분의 진술 의도에 대한 의문이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며, 혜성가의 문학적 함의는 바로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왜군의 내침을 부정한 것도 이 부분과 대응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완곡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혜성의 의미는 왕권도전의 병혁이며, 신기루를 바라보고 왜군이 왔다고 한 것을 들어, 그리고 화랑에 대한 찬미를 통해, 혜성을 길조로 인식시키고자 한 것은 이 왕권도전의 병혁을 감추기 위한 매우 교묘한 정치적 언술이었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왕권도전의 병혁에 대한 위기감은 이 설득의 진술을 통하여 거의 소멸된다.

왕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혜성의 출현으로 인해 왕권에 대한 변란의 기미를 눈치채게 되었지만,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닥칠지도 모르는 환란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왕권을 탈취하려는 쪽에서는 변란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기왕의 출병의 계획을 감추려고 했을 것이다.

혜성을 길쓸별로 설득하는 진술은 이러한 양측에게 매우 유익한 해결책이었다. 전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의구심 내지 위기감을 소멸시킨 것이 되고, 후자에게 있어서는 비밀스럽게 감추고 있던, 그리고 가요의 가창으로 인해 금방 노출되어버린 그러한 의도를, 공개되지 않은 채 없었던 일로 돌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서사물에서 '왜군도 돌아가서 도리어 북이 되었다'는 그 '북'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가요의 진술 방식을 통해서 성취된 변란의 바람직한 해결 방식에서 찾아진다. 갈등의 양측에 매우 적절한 처방을 내림으로써 변란을 미리 예방한 것이다.

4. 8~9행

後句 達阿羅淨去伊叱等邪

此也友物?(*叱·北·比·甚?)所音叱慧叱只有叱故

여기에서 어석상 문제가 되는 達阿羅에 대해 살펴보자. 이에 관해서는 ‘달이 아래에’⁵⁶⁾와 명사인 ‘달’로 풀이한 것,⁵⁷⁾ 그리고 ‘산 아래’⁵⁸⁾ 등의 해석이 있다. ‘달이 아래에’나 ‘달’로 풀이한 것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이 달이 흘러갔다는 것이지만, ‘산 아래’로 보는 견해는 ‘해성이 산 아래에 뒀다’는 의미로, 본고에서 가요의 전반부의 의미를 해성의 출현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과 모순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전자의 어석을 따른다. ‘달이 아래에 떠갔더라’는 것은 ‘달이 아무 일도 없이 저 아래로 떠 갔다.’로 해석된다. 달은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⁵⁹⁾ 달을 중심으로 풍월도(화랑도)의 국가이데올로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⁰⁾ 달의 운행이 순조롭다는 이 진술은, 앞에서 해성을 길조로 전환시켜 설득한 것에 뒤이은, 왕이나 국가에 아무런 변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다 강화된 설득의 확실한 표명이다. 천체의 변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라고 확신시킴으로써 결론적으로 ‘이에 무슨 해성이 있을까’라는 원천적 부정의 시침때기⁶¹⁾로 마감한다. 여기에서 가요의 전편을 통하여 풍기는 유우머의 의미심장한 의미가, 변란의 양측에 대하여 변란을 변란이 아닌 것으로 둘러대며 양측을 설득하고 변란을 예방하는 것이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성가의 의미구조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

56) 양주동, 앞의 책, pp.596~598.

57) 소창진평은 ‘달’, 김완진은 ‘드라라’로 읽었으나, 의미는 ‘달’로 마찬가지다.

58) 김승찬, 앞의 책, pp.204~205.

59) 앞의 주 42)과 43) 참조. 삼국사기 권4 진평왕조에도 달이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온다.(53년……도성이 달을 범하였다. 54년 정월에 왕이 돌아갔다.)

60) 김학성, 앞의 책, p.150.

61) 홍기삼, 앞의 책, p.440.

를 바탕으로 개별 의미 단락들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표현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락 (행)	의미 단위	진술 내용	진술의 의미
A (1~3)	일본병	일본병 내침의 부정	해성 출현의 부정을 위한 1차 예비 진술
B (4~5)	화랑	세 화랑의 찬미	일본병 내침에 대한 부정의 강화 해성 출현의 부정을 위한 2차 예비 진술
C (6~7)	해성	해성을 길쌈별로 전환	해성의 출현을 부정
D (8~9)	해성	해성 존재의 원천적 부정	해성의 출현에 대한 부정의 강조와 마감

문맥상 A와 B, 그리고 B와 C는 각각 맺구로 볼 수 있다.⁶²⁾ 이러한 맺구는 직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정사실을 이용하여 말하려는 내용을 비유·증명해 주는 것이다.⁶³⁾ 즉 A의 일본병 내침에 대한 부정은 당대인에게 과거의 기정사실로 인식된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C에서 해성을 길쌈별로 전환시켜 해성 출현을 부정하기 위한 예비적 진술의 구실을 한다. 이어지는 B와 C의 맺구도 마찬가지로, B에서 세 화랑의 산행이란 현재의 기정사실을 들어 역시 C에서 해성 출현을 부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예비적 진술로 삼는다.

A와 B는 모두 C에서 해성의 출현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귀결되며, 마지막 D의 해성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통하여 이러한 해성 출현의 부정이라는 전체적 의미는 강조되면서 완결된다. 결국 가요의 의미

62) 참고로 가요 원문의 행을 이러한 단락 구분에 따라 재배치하여 그 끝부분을 살피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단락	행	끝부분	행	끝부분
A	1행	望良古(보라고)	2~3행	也蕝耶(이슈라)
B	4행	聞古(듣고)	5행	波衣(바에)
C	6행	望良古(보라고)	7행	有此多(있다)
D	8행	等邪(더라)	9행	有此故(이실고)

63) 조종업, 對偶(對句)의 機能研究, 한국언어문학 제89 합병호, p.277 참조.

전개는 해성의 출현에 대한 부정을 위해 귀결되는 점층적 구조이다.⁶⁴⁾ 해성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마감되는 가요의 이러한 의미구조는 곧 서사물의 해성 소멸로 귀결되는 의미구조에 대응되는 것이기도 하며, 가요의 주술적 효험을 설명하는 이 조의 총체적 서사구조의 핵심이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64) 이에 대해서는 '설득의 정도를 더하는 점층'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양희철, 앞의 책, pp.413~429 참조.